

번호 II-13

제 목	국문	의료보험 청구명세서의 상병명과 실제 질환이환과의 일치도, 폐암과 유방암을 대상으로			
	영문	Agreement of Diagnosis in Medical Records and Diagnosis Code in Medical Claim Bills; Focused on Lung Cancer and Breast Cancer.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상욱, 실제웅, 지선하 ¹⁾ , 오희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¹⁾			
	영문	Yi Sang-Wook, Sull Jae Woong, Jee Sun Ha, Ohrr Heechoul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¹⁾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전 공 의 ()		포스터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0월				

1. 연구 목적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질병 및 사인에 대한 분류기호는 의료보험 진료비청구와 지불에 가장 근본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이후 의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이래 의료보험 청구명세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질병의 발생과 이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의료보험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의무기록상의 상병명이 일치도가 떨어진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의료보험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암의 52%만이 암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명세서의 상병명을 이용하여 상병명과 실제 질환 이환여부와의 일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999년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 중 1998년과 1999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청구명세서에 폐암과 유방암이 제 1 진단명으로 나온 3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19명 중 방문한 의료기관이 기록된 대상자는 폐암환자 76명, 유방암환자 54명으로 총 130명이었다. 이 130명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진단명, 진단날짜, 진단방법을 조사하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상자의 수가 많은 의료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대상자의 자료는 각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실을 통하여 의무기록사가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130명의 대상자 중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폐암 70건, 유방암 51건으로 총 121건이었다. 폐암으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대상자 중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70건에서 원발폐암으로 확인된 것은 65(92.9%)건이었으며, 전이성폐암으로 확인된 것이 1건(1.4%), 폐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은 4건(5.7%)이었다. 유방암으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대상자 중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51건에서 원발유방암으로 확인된 것은 48건(94.1%)이었으며, Intraductal carcinoma(D05)가 유방암(C50)으로 기재된 것이 2건(3.9%)이었으며, 양성종양이 1건(2.0%)이었다.

원발폐암으로 확인된 65명중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43명(66.2%)이었으며, 원발유방암으로 확인된 48건 중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42명(87.5%)였다.